

본격 장마 시작... 건설업계는 '한숨'

건설사 관계자 "비가 많이 내려 공기를 좀 늦추더라도 자재비 낮춰서 가는 게 유리"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공사를 쉬어야 하는 장마철은 건설 현장에 악재다. 하지만, 올해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이 워낙 많아 자재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충할 건설현장 '휴지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4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량이 적었던 2014년 이전만 해도 장마가 빨리 끝나기만 고대했던 건설사 분위기가 올해는 확 달라졌다. 중견건설사의 한 자재부장은 "과거만 해도 공기를 앞당기는 게 최선이었지만 자재가 많이 너무 오르고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장마가 길어져 현

장을 잠시 쉬게 하는 게 유리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상반기 비가 워낙 적어서 쉬지 않고 돌아간 건설현장에 피로도 많이 쌓여 안전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3개월(4~6월) 강수량은 119.6mm로, 평년(259.3mm)의 46%였다. 건설 최성시기인 5월과 6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30%와 32%에 그쳤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별 공기는 날씨가 아니라 자체 확보 여부에 따라 갈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강우 영향을 많이 받는 골조공사용 레미콘과 철근 제조사들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재고를 쌓을 틈이 없을 정도로 판매량이 떨어진 탓이다.

철근 가공업체의 한 임원은 "현장의 철근 수요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수입산이 끊기면서 일요일까지 공장을 돌려도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며 "장마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변수다. 적어도 비가 평일에 나올 이상 꾸준히 와야 잡사나마 수급이 완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가 오면 출하량이 많지는 절반, 적어도 30%가량 줄어드는 레미콘업계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극심한 폭우현상을 빚는 골재 확보 어려움에도 레미콘 가격 인상이 여의치 않은 탓에 장마가 좀 오래갔으면

하는 바람을 숨기지 않는다. 이날 14만 2천원 내린 철근가격에도 스크랩가격 인하에 더해 장마를 시작으로 한 비수기 진입이 한몫했다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장마가 레미콘 가격 인상 압박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다.

기상청의 전망치를 보면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8월은 평년 수준이다. 건설 최성시기인 9월에 오히려 비가 많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 수급이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 공기를 좀 늦추더라도 자재비를 낮춰서 가는 게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신협중앙회 문철상 회장, 금마신협 현장 방문

신협중앙회 문철상 회장은 4일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금마신협을 찾아 건설성과 지역과 함께하는 신협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마신협은 김병한 이사장과 윤여정 상무를 비롯해 임원 7명과 직원 5명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 임.직원이 단결해 적극적 의식을 갖고 조합원과 지역민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시현해 지난

해 신협중앙회 경영평가 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역 금융협동조합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으로써 조합원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성장하는 금마신협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조합원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조합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유미' 복숭아, 무봉지 재배 품질 '합격점'

봉지 씌우지 않고 재배 가능...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진흥청은 지난 3일 경북 청도에서 7월 상순부터 수확이 가능한 크고 맛있는 복숭아 '유미'의 현장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회는 농업인, 품종업체 등이 참석해 복숭아 '유미' 품종의 무봉지 재배 특성과 재배 시 유의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했다.

7월 상순 장마철에 수확되는 조생종 복숭아는 중·만생종에 비해 재배하기가 어렵고, 과일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수확 전 내리는 비로 단맛이 쉽게 빠져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

다.

이런 이유로 조생종 복숭아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중·만생종에 비해 재배비율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 최근 조생종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08년 육성한 조생종 '유미' 품종은 남부지역에서 7월 2일 전후로 수확되는 백육계 복숭아다.

같은 시기 출하되는 조생종 품종과 비교했을 때 과일 무게는 201g, 당도 11.9%Bx 이상으로 과실

의 맛과 크기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봉지 재배 품질도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고가의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일손을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숭아 생산을 위한 연간 노동시간은 10a(300평) 기준 162.8시간으로 이 중 봉지 씌우기에 19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

평가회가 열리는 작목반 농가의 양면학 씨는 "유미 품종은 크고 맛도 좋지만 꽃이 핀 후 약 80일 정도 지나면 바로 과실을 수확하기

때문에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6년간(2003~2008년) 지역적응시험을 거치면서 내한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친 후 농가에 보급되어 동해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과수와 남양영 농업연구사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대비해 앞으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품종 선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봉지를 씌우지 않고 복숭아를 재배하는 경우 기상여건을 고려해 병해충 방제에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 차득기 원장 취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제19대 원장에 차득기 전 LX부산지역본부장(58)이 취임했다.

차득기 원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측지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로 국립측량대학 석사를 수료하고, 한양대 지역정보체계과 석



사과정과 경계대 공학박사를 각각 마쳤다.

차 원장은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연구실장,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LX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원장실은 언제나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6월 도내 주식 거래량·거래대금 모두 증가

6월 전북지역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6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2억1088만주로 지난 5월보다 0.88%(179만주)가량 증가했다. 거래대금(1조4396억원)도 10.93%(141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투자자의 거래비중은 전월 대비 변동이 미미했다.

유가증권 거래량 상위 종목은 SK증권, KGP, 페이퍼코리아, 보투네오, 영진약품, 미래산업, Y에너지화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시장은 세종텔레콤, KD건설, 에스마크, 이에스브이, 엔에스엔, 행남생활건 순이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홍채 인증 스마트뱅킹 서비스 시행

전북은행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홍채인증만으로 스마트뱅킹 금융거래가 가능한 홍채인증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

홍채인증 서비스는 고객의 스마트폰 안전공간(Trust Zone)에 홍채정보를 저장하고, 이체거래나 예금가입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홍채인증 한번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북은행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개

인이면 삼성 갤럭시S8, 갤럭시S8+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바이오통보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월 도입된 지문인식에 이어 이번 홍채인증을 통해 쉽고 빠른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행복나눔이 식생활 개선 교육 실시

전북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지역본부 상생관에서 농촌 취약계층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행복나눔이'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고령자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주기전대학 식품영양학과 지선경 교수를 초청해 고령자가 지켜야 할 식사관리,

주요 노인성 질병, 안전한 식품관리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 세탁, 반찬지원 등 취약가구의 기초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기사제보 288-9700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연합동조합